

# 현대 패션의 소재 및 이미지 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aterial and Image Trends in Contemporary Fashion

박주희

Judy Joohee Park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수료

Doctoral degree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new materials and images in fashion collections of the 2000s to reveal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ety, value, material, style and image and predict the fashion materials and images for the future from a fashion design perspective based on these analyses.

Collections of the 2000s were selected from style.com. In case a new material was used for clothing, the social, fashion and value backgrounds for the new material were examined, and the intended image extracted.

New fashion materials in the 2000s were found to be much lighter and softer and machine-washable. There were intellectual materials with particular functions and newly treated leather and silks. The images of the fashion collections of the 2000s can be divided into luxurious image, minimalist image, feminine image, ethnic image and futuristic image.

In the future, demands for intelligent material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a society of information. With globalization complete, ethnic style will only adopt traditional images but probably use new materials. Materials are expected to become even lighter and softer as technology advances and people pursue a healthy lifestyle, and with the importance of brands and designs, a variety of materials will be applied, mixed and matched in fashion.

Key Words : Material, image, fashion, future, trend.

## I. 서론

패션 유행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이미지의 변화가 유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변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의존하며 사회적 분위기는 다시 경제, 정치적 상황, 경기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sup>1)</sup> 패션 상품의 소재는 실루엣이나 색채가 유행하는 것처럼 시기에 따라 변하고,<sup>2)</sup> 소재의 변화로 인해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션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패션 소재와 이미지는 패션 소재를 통해 표현된 이미지로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사회를 이미지로 반영하여 소재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컬렉션의 새로운 소재와 이미지를 고찰하여 사회·가치, 소재, 이미지 등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미래 패션의 소재와 이미지를 패션디자인 관점에서 이미지 위주로 예측하여 미래의 패션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미래 패션디자인의 소재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서양복식에서 신소재의 등장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적 배경과 이를 통해 표현되는 이미지를 고찰하여 사회, 소재, 이미지 간의 관계를 밝힌다.

둘째, 2000년대 컬렉션에 등장한 새로운 소재 사례들을 고찰하고 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가치적 배경과 이를 통해 표현되는 이미지를 고찰한다.

셋째, 현대 패션의 소재 변화 경향과 이미지 변화 경향을 토대로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의 패션 소재를 예측한다.

복식미의 요소로서의 소재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특정 디자이너의 소재 사용에 관한 연구(김일, 1993)<sup>3)</sup>, 특정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소재를 하나의 표현으로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김유정, 김혜경, 2004)<sup>4)</sup>; 이민경, 한명숙, 1999<sup>5)</sup>, 복식 예술로서의 복식의 독특한 소재에 관한 연구(이인성, 1996)<sup>6)</sup>, 패션디자인의 하나인 특정 소재에 관한 연구(이영재, 2002<sup>7)</sup>; 박주영, 박혜원, 2002<sup>8)</sup>), 특정 시즌의 패션소재에 관한 연구(최종명, 2003)<sup>9)</sup> 등이 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소재와 이미지의 관계나 미래 소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적이고 기능적인 신소재가 급격하게 많이 발달되고 있는 현대에 패션디자인에서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소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소재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sup>10)</sup>이므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패션소재 기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욕·파리·런던·밀라노의 패션 컬렉션을 2000년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2000년~2008년은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의 S/S와 F/W 시즌 패션위크의 컬렉션 중 스타일닷컴(www.style.com)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컬렉션으로 제한하였다. 'Material'과 'fabric'의 키워드를 입력하여서 나타나는 컬렉션 중 쇼에 대한 패션기사가 있는 컬렉션을 먼저 선정하고, 패션기사에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언어적 언급이 있는 컬렉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새로운 소재가 복식에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패션 배경, 사람들의 가치 등을 고찰하였고 새로운 소재를 통해 표현했던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이미지 추출 방법은 해당 복식을 통해 표현된 이미지에 대한 언급이 논문이나 패션기사 등에 언어적으로 구체화된 것을 근거로 하였고 이미지 형용사, 패션 스타일 적용 및 패션 성향의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새로운 소재는 다른 영역에는 사용되었지만 기존의 복식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이며, 신소재 및 혁신적인 소재를 포함한다. 미래의 소재는 앞으로 미래에 사용될 패션 소재를 말한다.

## II. 복식의 소재와 이미지의 연관성

우리는 소재를 통해 세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한 민족의 문명의 발달과 제국의 멸망은 그 민족의 옛 천과 소재를 통해 읽을 수 있다.<sup>10)</sup> 이렇듯 소재는 인간 역사와 인간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복식을 디자인 할 때에는 물론, 소비,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소재부터 시작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up>11)</sup>

최근 사회와 문화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패션에 있어 유행과 디자인을 통해 표현되는 미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졌다. 패션 상품의 가치는 스타일이나 디자인과 함께 소재가 지닌 색상, 패턴, 촉감, 표면감, 드레이프 등의 관능적인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sup>12)</sup> 복식의 소재는 새로운 복식미 표현에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고,<sup>13)</sup> 기술적 발전, 새로운 시각,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한다.

소재를 이용한 이미지 표현의 예로 고대의 에로티시즘(eroticism)을 들 수 있다. 에로티시즘이라 함은 생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생식행위와는 무관계하여 본질적으로는 심리적인 시초에서 그 이미지를 환기시킨 다든지 암시 표현하든지 하는 것이다.<sup>14)</sup>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고대에는 가슴이나 팔 등 거의 모든 상반신이 노출되었으나, 중세의 비잔틴(Byzantine) 시대에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인체가 감추어져 있었다.<sup>15)</sup> 에로티시즘은 이와 같이 사회나 개인의 미의식이나 욕구에 의해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복식에서는 에로티시즘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 복식의 컷팅이나 슬래쉬 등으로 노출을 하기도 했지만, 소재를 이용한 간접적인 표현 방식도 있었다. 즉, 이집트 시대의 복식은 얇은 면 머슬린(muslin)으로 된 반투명한 부드럽고 우미한 의복을 몸에 감싸서 입거나 투명하거나 반투명 소재의 사용으로 옷 속의 인체가 아름답게 비치는 효과로 에로틱한 미를 드러냈다.<sup>16)</sup>

현대 패션에서도 소재는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패션 소재와 이미지에 관한 2002년 연구 결과<sup>17)</sup>에 의하면 광택이 없으며 촉촉한 소재가 '편안한'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택이 있으며 성근 소재는 '개성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얇고 성근 소재가 '가벼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택이 있고 평평하고 촉촉한 소재가 '단순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 요소로서의 소재에 관한 2002년 연구는 복식에 사용되는 소재는 복식의 색채와 형태를 이루는 매개체라고 하였으며,<sup>18)</sup> 패션 트렌드에 적합한 소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19)</sup> 1970년대에 일상적인 패션이 점점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수공예적인 요소와 민속의상의 중요 테마로 등장한 노스탈지아(nostalgia) 트렌드는 복고풍 스타일과 그 시대에 사용했던 옛 소재들로 표현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산업화와 개발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와 온실효과,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에콜로지(ecology) 또는 내추럴(natural) 패션이 중요 테마로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소재로 마와 같이 거친 소재, 진과 같이 빛이 바랜 소재, 극세사나 사이로스펜사와 같은 특수사, 또는 워싱(washing), 기모, 피치 스킨(peach skin) 가공 등을 사용한 부드러우며 젖은 느낌의 소재, 그리고 환경친화성에 강조를 둔 새롭고 매끄러운 느낌의 리오셀(lyocell)을 비롯한 뉴레이온 소재, 바이오 가공 소재, 재활용 소재 등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두 가지 주요 트렌드가 있었는데, 첫째는 자연과 문화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 에스닉 패션이 중요 이미지로 등장하였고, 이는 중국의 실크나 인도의 면직물, 동남아시아의 바틱(batik)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얻은 강한 느낌의 러프 프린트 소재, 눈에 띄는 정열적인 색상, 자연물에서 힌트를 얻은 기하학적인 무늬, 독특한 문양의 자카드 직물 등이나 전원풍의 소박함이 느껴지는 면, 마, 모 등의 전통적인 소재로 표현되었다. 둘째, 시장개방과 세계화가 패션소재의 중요 테마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는 양보다 질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고감성은 물론 다양성을 갖춘 복합 감성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혼방, 교연과 교직 직물간의 복합(플로킹, 이중직, 본딩 등), 그리고 색상의 복합(멜란지사나 크로스 염색)을 통한 소재의 다양화와 복합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패션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사회의 변화와 사람들의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함께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은 여러 영향으로 소재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2000년대의 가장 혁신적인 소재들의 등장과 그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패션과 현대 및 미래의 소재 및 이미지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I. 2000년대 패션의 소재 및 이미지 변화

2000년대 패션 컬렉션에 등장한 새로운 소재 및 이미지를 고찰하기에 앞서 2000년대의 전반적인 패션 트렌드와 소재 경향에 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현대인들은 꽃무늬 소재와 같이 프린트가 된 소재보다 아무 무늬가 없는 소재나 핀스트라이프(pinstripe) 무늬와 같은 소재의 천을 더 많이 소유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소재를 가진 옷은 오래 입을 수 있고 유행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재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패션유행을 바꾸는 힘도 있다. 현대 패션 소재의 트렌드 중 하나는 산업화와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의 자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인공소재가 많이 발달하였고 널리 이용된다는 것이다.<sup>20)</sup> 예를 들어서 면 대신 오가닉(organic) 면이나 화학용품을 덜 사용한(low-chemical) 면이 등장하였다.<sup>21)</sup> 면과 같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진 소재 외에 21세기에는 테크노 텍스타일(techno textiles)이 개발되고 있다. 테크노 텍스타일은 매우 혁신적인 소재인데 미적이거나 장식적인 면보다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는 소재들로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기능적인 소재들이다.<sup>22)</sup>

패션산업에 있어 패션소재의 미적인 비중 또한 날로 커지고 있어, 소재는 21세기 패션산업을 주도할 메가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주로 사용된 소재들은 시폰, 저지, 니트, 새틴 등으로 20세기보다 훨씬 부드러운 소재들이며, 색상은 주로 블랙과 화이트, 문양은 스트라이프와 오리엔탈적인 식물 문양이 많이 표현되었다.<sup>23)</sup> 특히 2002년의 미래 텍스타일 트렌드를 제안하는 밀라노 *Moda In* 전시에서 반영된 트렌드들을 통해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도적인 얼룩, 예술적인 찢김, 기형 구조와 굳은 느낌의 소재, 흐르는 움직임과 새틴과 같은 느낌의 그림자와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오버레이어링(over-layering)과 다이나믹한 느낌의 하이테크 소재 등이 제안되었다.<sup>24)</sup> 모피 패션도 2000년대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인조 모피 개발과 탈색과 염색이 발전하여 스타일이 변하였는데, 다양화, 컴비네이션 형태, 트리밍 스타일, 야생 동물의 문양 모방 등의 스타일로 2000년대에는 기존의 고풍스럽고 차분한 이미지와는 달리 내추럴 히피리즘, 프리티쉬 럭셔리, 럭셔리 스포티즘, 에로틱 럭셔리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한다.<sup>25)</sup>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새로운 소재 및 이미지 동향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스타일닷컴(www.style.com)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2000년-2008년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의 S/S와 F/W 패션위크 컬렉션 중 'material'과 'fabric'의 키워드들을 입력하여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컬렉션을 고찰하였다. style.com에서 분류하고 선별한 자료들을 연구자가 평가하여 의도와 명확히 일치하는 의상들만 선정하여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총 14개의 컬렉션과 115점의 의상이 고찰되었다. 총 고찰된 14개의 컬렉션을 구성하는 의상 수는 540점이었지만 그 중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의상 사진이 115점 선정되었다.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5년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2002년, 2003년과 2004년까지 각 1개, 2006년에는 4개, 2007년에는 4개, 그리고 2008년에는 3개의

컬렉션이 있었다.

Carolina Herrera의 2000 F/W 컬렉션은 신소재는 아니지만 소재의 새로운 활용을 보여주었는데, 낮을 위한 복식으로 금사를 넣어서 짙은 직물("restrained gold-lame fabric for day")을 제안하였다. <그림 1>의 작품은 톤다운된 금사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침착하고 세련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컬렉션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재킷, 트랜치코트, 블라우스 등에 사용하여 화려하고 글래머러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3년에는 Roberto Cavalli가 S/S 컬렉션에서 의도적으로 크링클 된 가죽("distressed, crimped leather")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좋은 품질의 가죽을 새롭게 스타일링 하였다. <그림 2>에서는 크링클 된 가죽으로 재킷과 팬츠를 제작하여 볼드(bold)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작품들에서도 주로 팬츠나 아우터웨어 사용하여 볼드 프린트를 활용한 이너웨어와 잘 매치시켰다.

Jean Paul Gaultier의 2004년 S/S 꾸뛰르 컬렉션은 물고기 느낌의 인조 가죽, 도마뱀 가죽, 투명 뱀가죽("materials like fish skin, lizard, and transparent python") 등을 사용하였고 실크 리본으로 다양한 가죽들을 엮었다. <그림 3>에서는 뱀가죽의 스커트로 색시하고 예술적인 면을 선보였으며 컬렉션의 다른 작품에서는 드레스에 인조 가죽이나 도마뱀 가죽을 리본과 같이 엮어 예술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 Carolina Herrera, 2002 F/W  
출처:www.style.com



<그림 2> Roberto Cavalli, 2003 S/S  
출처:www.style.com



<그림 3> Jean Paul Gaultier, 2004 S/S Couture  
출처:www.style.com



<그림 4> Naum, 2006 S/S  
출처:www.style.com



<그림 5> Preen, 2006 S/S  
출처:www.style.com



<그림 6> Alessandro Dell'Acqua, 2006 F/W  
출처:www.style.com



<그림 7> Calvin Klein, 2007 S/S  
출처:www.style.com



<그림 8> Monique Lhuillier, 2007 S/S  
출처:www.style.com

2006년에는 4개의 컬렉션에서 새로운 소재의 사용이 돋보였는데, Naum의 S/S 컬렉션에서는 항균성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면과 같은 “지능적인” 소재(“‘intelligent’ material, like antibacterial and sun-protective cotton”)를 사용하였다. <그림 4>의 작품에서와 같이 지능적인 소재를 이용한 셔츠를 많이 선보였다. Preen의 S/S 컬렉션은 워싱된 새틴(“washed satin”)을 사용하여 기존에는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럽고 반짝이는 상태의 새틴만 사용했던 관념에서 벗어났다. <그림 5>의 작품에서는 워싱된 새틴으로 부드러운 드레스를 선보였고, 다른 작품에서는 랩 드레스 블라우스 등의 절제미를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Alessandro Dell’Acqua의 F/W 컬렉션에서는 안감을 안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피스 소재로 사용하였다(“nude dress made of lining fabric”). <그림 6>에서는 안감 소재를 이용한 원피스가 제시되며, 타이트한 실루엣의 같은 소재이지만 다른 색상으로 선보인 원피스 또한 있었다.

2007년 S/S 시즌에는 Calvin Klein이 투명한 소재(“transparent fabrics”)를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그림 7>에서 플리트 처리된(pleated) 투명한 소재를 무늬 없는 원피스위에 레이어함으로써 미국적인 심플함을 모던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 컬렉션의 다른 작품에서는 투명한 튜닉이나 스커트를 탱크탑 위에 입는 등의 세련된 단순함을 선보였다. Monique Lhuillier가 거친 린넨 라피아(“roughly textured linen raffia”)와 같은 의외의 소재를 이브닝 웨어로 사용하였다. <그림 8>의 작품에서 린넨 라피아로 이브닝 드레스를 제작하여 의외의 소재로 페미닌한 느낌을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작품에서도 같은 소재를 더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보였다. Fendi에서는 실리콘과 같은 고기술 소재(“high-tech materials such as black silicone”)를 선보였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검정 실리콘으로 만든 타이트 팬츠와 튜브탑으로 심플하지만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다른 작품에서도 은색 소재나 실리콘을 사용하여 짧은 원피스나 반바지로 경쾌하고 세련된 느낌을 제시하였다. 2007년 F/W 시즌에는 Jean Paul Gaultier 컬렉션에서 다양한 소재들을 격자무늬 테피터(“mixed-material coats in plaid taffeta”)로 표현하였다. <그림 10>의 작품은 격자무늬 테피터를 이용한 화려한 느낌의 원피스로 스코틀랜드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 외에 다른 작품들도 다양한 소재를 혼용하여 화려한 느낌을 주는 원피스, 코트 등이 포함되었다. Rodarte는 얇은 박판이 겹쳐진 천(“unusual laminated fabrics”)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들(“modeling new materials into different shapes”)을 선보였다. <그림 11>에서 얇은 박판이 겹쳐진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독특한 입체적인 실루엣의 원피스를 제작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외에 다른 원피스와 코트, 블라우스 등에도 은은하게 빛나는 박판이 겹쳐진 천을 이용하여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9> Fendi,  
2007 S/S  
출처:www.style.com



<그림 10> Jean Paul Gaultier,  
2007 F/W  
출처:www.style.com



<그림 11> Rodarte,  
2007 F/W  
출처:www.style.com

<표 1>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2000년대 컬렉션의 이미지

연도	디자이너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근거		
			이미지 형용사	패션 스타일 적용	패션 성향
2002	Carolina Herrera	-글래머러스	-Lush(화려한) -well-bred glitz(점잖은 화려함)	-웨어러블 테일러링 -검정, 아이보리, 골드 색상 -골드 비딩	-호화로움, -고급스러움
2003	Roberto Cavalli	-글래머러스 -화려한	-글래머러스 -beautifully embellished (이름답게 장식된) -exuberant(화려한)	-화려한 프린트 -호피무늬 라이닝 -용이 그려진 가죽	-코르셋 -색시함
2004	Jean Paul Gaultier	-동양적 -예술적	-samurai-meets-corset-maker (사무라이가 코르셋을 만든 듯한)	-실크 리본 -바다 생물의 가죽을 아시아 느낌으로 표현	-예술성 -여러 개의 칭키 액세서리
2006	Naum	-에스닉	-kimono silk(기모노 실크) -ethnic(에스닉)	-실버 자카드 -실험적인 텍스처 -정교한 오리가미 접기	-이국적 -에스닉 느낌의 드레스
	Preen	-모던함 -세련됨	-cleaner(깨끗함) -refined(세련된)	-세련되고 가볍게 레이어드된 셔츠 -랩 드레스 -깨끗한 컬러와 스타일	-세련됨 -부드러움 -가벼움
	Alessandro Dell'Acqua	-심플함 -색시	-sensual(감각적) -nude(누드)	-속옷이 보이도록 오픈된 셔츠 -장식 생략 -누드 색상	-색시함 -단순성 -타이트 실루엣
2007	Calvin Klein	-미국적 편안함 -심플함	-lightness(가벼움) -American ease(미국적 편안함)	-스포티 레이어드 원피스 -오버사이즈 파카 -심플한 단색	-편안함 -단순성 -세련됨
	Monique Lhuillier	-페미닌 -깔끔함	-flowery p(꽃과 같은) -pretty(여성스러운)	-꽃과 같은 색상 -여성스러운 원피스	-여성스러움 -안정적인 색상 -단색
	Fendi	-그래픽 -미래적 -색시	-futuristic(미래적) -graphic(그래픽)	-메탈 느낌의 짧은 원피스 -단순한 실루엣 -반짝이는 소재	-모던함 -미래적 -색시함
	Jean Paul Gaultier	-스코틀랜드 -글래머러스	-Scottish(스코틀랜드의) -colorful(다양한 색상의) -elaborate(화려한)	-과장된 실루엣 -다양한 디테일 -다양한 소재의 혼용	-화려함 -독특함 -이국적임
	Rodarte	-환상적인 -클래식	-fantastic(환상적인) -sophisticated(세련된) -classic(클래식) -rare(흔하지 않은)	-빛나는 소재의 새로운 실루엣 -여신과 같은 느낌의 원피스 -반짝이는 자수	-새로움 -모던함 -환상적임
2008	Sinha-Stanic	-젊음 -가벼움	-airy(공기처럼 가벼운) -young(젊은)	-드레이프된 원피스 -가볍게 몸을 감싸는 재킷과 스커트 -경쾌한 단색	-가벼움 -단순성 -새로움
	Jens Laugesen	-미니멀리즘 -고급스러움	-minimal(미니멀) -formal wear(포멀한 의상)	-샤프한 테일러링 -골드 색상 -블랙 새틴	-포멀함 -심플함 -고급스러움
	Y&Kei	-어번 히피 -페미닌	-prettiness(여성스러움) -urban hippies(어번 히피)	-편안하고 부드러운 실루엣 -박시한 코트 -깃털과 자수 디테일	-히피 -여성스러움 -편안함





<그림 12> Sinha-Stanic,  
2008 S/S  
출처:www.style.com



<그림 13> Jens Laugesen,  
2008 S/S  
출처:www.style.com



<그림 14> Y&Kei,  
2008 S/S  
출처:www.style.com

2008년 S/S 시즌 컬렉션에서도 새로운 소재들이 등장하였는데, Sinha-Stanic 컬렉션에서 구조적인 느낌을 유지하는 가볍고 얇은 가자르("airy fabric that keeps its structure...gazar")를 사용하였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가벼운 가자르를 이용한 젊고 가벼운 느낌의 원피스도 있었고, 다른 작품으로는 가자르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한 특이한 솔 느낌의 재킷, 부드럽고 세련된 팬츠 등이 있었다. Jens Laugesen은 우븐 소재와 라이크라의 하이브리드("hybrid of woven fabric and Lycra")를 사용하였다. <그림 13>에서는 우븐 소재와 라이크라의 하이브리드로 만든 새로운 개념의 레깅스를 볼 수 있으며 기타 작품에서도 레깅스를 숏 재킷 등과 매치하여 세련된 포멀 룩을 선보였다. Y&Kei는 인조 깃털을 컷팅하여 은색 메탈릭 소재에 아플리케 하였다("hand-cut 'feathers' were applied onto silver metallic fabric"). <그림 14>에서 깃털을 메탈릭 소재에 아플리케한 원피스를 볼 수 있다.

각 2000년대 컬렉션의 이미지를 이미지 형용사, 패션 스타일 적용 및 패션 성향을 근거로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2000년대 컬렉션에서 나타난 신소재와 새로운 느낌의 소재 사용과 각 컬렉션에서 표현한 이미지를 당시의 사회 환경 및 가치와 각 컬렉션 사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표 2>으로 정리하였다. 각 컬렉션 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의상이 컬렉션에서 차지한 비중을 <표 2>에서 수치로 보여준다.

2000년대 패션 컬렉션에 등장한 새로운 소재 경향을 보면 항균성이나 자외선 차단 등과 같은 기능적이고 지능적인 소재들이 등장했고, 세틴이나 가죽과 같은 기존의 부드러운 고품질 소재를 의도적으로 위성하거나 크링클을 하기도 하였고, 인조 깃털이나 가볍고 투명한 소재를 거칠고 구조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2000년대의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세계화와 함께 IT화가 되었고, 기술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반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웰빙 라이프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몸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미니멀하면서 기능적이고 지능적인 소재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패션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격 기준보다는 브랜드 기준과 스타일, 디자인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죽과 같은 좋은 자연 소재에도 인공적인 처리를 하여 더욱 앞서가는 스타일의 트렌디하고 글래머러스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감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남성 패션이 여성화된다는 보도 및 연구가 다수 나타날 정도이며, 여성복 역시 기존의 포멀한 투피스보다는 감성적이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의 영향으로 기존에는 남성 정장 소재로 모, 면 트위드 등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쉬폰이나 실크 등 기존에는 여성복에서만 사



<표 2> 2000년대 사회를 반영한 패션의 새로운 소재 및 이미지 요약

연도	사회 환경	가치	디자이너	소재	이미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의상 수/ 컬렉션 전체 의상 수
2002	-IT화 -세계화 -기술 발달  -웰빙,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 -브랜드 파워가 강해짐  -가격보다는 디자인 -21세기의 시작	-건강한 삶 추구  -빠르고 편안한 삶 추구  -고기슬은 일상의 일부  -좋은 브랜드, 좋은 디자인 추구  -감성적인 욕구 -미래적인 느낌 추구 (퓨처리즘)	Carolina Herrera	-금사 라메	-글래머러스	6/43
2003			Roberto Cavalli	-의도적으로 크렁클 된 가죽	-글래머러스 -화려한	9/62
2004			Jean Paul Gaultier	-물고기 느낌의 인조 가죽 -도마뱀 가죽 -투명 뱀가죽	-동양적 -예술적	3/27
2006			Naum	-항균성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면	-에스닉	2/25
			Preen	-워싱된 새틴	-모던함 -세련됨	15/41
			Alessandro Dell'Acqua	-안감을 걸감으로	-심플함 -섹시	4/36
			Calvin Klein	-투명 소재	-미국적 편안함 -심플함	25/35
2007			Monique Lhuillier	-거친 린넨 라피아	-페미닌 -깔끔함	11/39
			Fendi	-실리콘	-그래픽 -미래적 -섹시	8/42
			Jean Paul Gaultier	-다양한 소재로 격자무늬 태피타	-스코틀랜드 -글래머러스	6/49
	Rodarte	-얇은 박판이 겹쳐진 천	-환상적인 -클래식	4/28		
2008	Sinha-Stanic	-구조적인 느낌을 갖는 가볍고 얇은 가자르	-짧음 -가벼움	14/25		
	Jens Laug Tesen	-우븐 소재와 라이크라의 하이브리드	-미니멀리즘 -고급스러움	7/34		
	Y&Kei	-인조 깃털을 메탈릭 소재에 아플리케	-어번 히피 -페미닌	1/16		

용되었던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고, 여성복에서도 부드럽고 자유로운 느낌의 새로운 소재를 실험적으로 패션디자이너에서 점점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는 21세기의 시작이고 이에 따라 현재 패션에서도 퓨처리즘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20세기의 딱딱하고 무거운 메탈 소재보다는 기술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가벼운 소재들을 구조적으로 사용하여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이와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된 2000년대 패션 컬렉션들의 이미지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글래머러

스(glamorous) 이미지, 미니멀리즘(minimalism) 이미지, 페미닌(feminine) 이미지, 에스닉(ethnic) 이미지, 그리고 미래적인(futuristic) 이미지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컬렉션들도 있었다. 글래머러스 이미지는 컬렉션 자체가 럭셔리한 경우를 가리키지만, 전체적으로 고찰된 모든 컬렉션들이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미니멀리즘 이미지의 컬렉션들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다른 디테일보다는 미니멀한 실루엣 등을 디자인하여 세련된 스타일을 표현했다. 페미닌 이미지는 말 그대로 여성스러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인들의 감성적인 면의 표현이다. 에스닉한 이미지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제는 다른 나라를 알아가는 단계를 뛰어넘어 다른 나라와 연관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감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일본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예술성과 화려함을 표현했고, 스코틀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풍부한 색상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미래적인 이미지는 20세기에 이어서 21세기에도 나타나는 이미지로, 주로 은색과 메탈릭 소재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디자이너 컬렉션 수와 표현된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다음 <표 3>과 같이 정량화할 수 있다.

<표 3> 2000년대 연도별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디자이너 컬렉션 수와 표현된 이미지  
(style.com에서 검색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4대 컬렉션)

연도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표현된 이미지 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총 컬렉션 수
	글래머러스 이미지	미니멀리즘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	미래적인 이미지	
2002	1	0	0	0	0	1
2003	1	0	0	0	0	1
2004	0	0	0	1	0	1
2006	0	3	0	1	0	4
2007	2	0	1	1	1	4
2008	0	2	1	0	0	3
총계	4	7	2	3	1	14
%	26.7	46.7	13.3	20	6.7	100%

<표 3>에서 의상 수가 아닌 컬렉션 수를 제시한 이유는 각 컬렉션마다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의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랐기 때문에 의상 수로 새로운 소재가 나타나는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컬렉션 수를 제시함으로써 4대 컬렉션에서 새로운 소재를 제안한 컬렉션이 2000년~2008년까지 15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5개 컬렉션 중 각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2001년, 2005년에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디자이너 컬렉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00년에는 Imitation of Christ가 종교라는 테마와 죽음이라는 코드로 교회에서 컬렉션을 발표하는 등 종교적이거나 정신적인(spiritual) 테마의 컬렉션이 많았고 2001년에는 유명 디자이너 Mami가 빈티지 느낌의 옷을 발표하는 등 부드러운 실루엣과 색상, 그리고 이에 따라 부드럽고 오래된 듯한 소재가 유행했기 때문이다.<sup>26)</sup> 2005년에는 2000년대 초반과 달리 매우 다양한 트렌드들이 공존하는 시점이었다. 영국 『보그』에서는 2005-2006 F/W 시즌 트렌드를 21가지 소개하였는데, 블랙, 액세서리, 소녀다운 엠파이어 라인 드레스 등으로 미래적이거나 새로운 소재를 요구하는 트렌드보다는 과거나 과거의 스타일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7)</sup>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3~4개씩의 컬렉션이 발견되었고, <표 2>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의상 수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컬렉션에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의상의 평균 수는 9개로 2005년 이전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최근에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응용이 패션디자인에 있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미래적인 이미지가 많이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컬렉션이 한 이미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두 개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표에서는 주요 이미지 하나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07년 Rodarte 컬렉션은 글래머러스 이미지를 표현했지만 새로운 형태와 반짝이는 신소재로 미래적인 이미지도 함께 표현하였고, 2008년 Jens Laugesen 컬렉션은 미니멀리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메탈릭한 느낌의 소재를 이용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1960년대와 같이 미래적인 이미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이미지를 소재로써 표현하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방향을 함께 추구함을 알 수 있다.

#### IV. 미래 패션의 소재 및 이미지 예측

현재까지의 2000년대의 흐름으로 보아 21세기에는 IT화, 세계화, 기술 발달, 건강한 삶의 추구, 강력한 브랜드 파워, 디자인의 중요성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IT화는 단순한 정보화가 아닌 지식 기반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는 진행과정이 아닌 완료한 상태가 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 일상화되고, 브랜드는 가격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디자인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기술기반 위에서 어떻게 좀 더 질 높은, 부가가치치향의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가 하는 '지식기반의 정보사회'로의 사회변화가 필요하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8)</sup> 따라서 기업, 소비자, 디자인 모두 지식 기반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능적인 소재에 대한 욕구가 특수복만이 아닌 일상 패션에서도 점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의 차원에서 21세기에는 세계 민주주의가 확장하여 국가 간의 시장이나 경제 등이 더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sup>29)</sup> 따라서 2000년대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과 같이 패션에서의 에스닉 스타일은 더 이상 신비로운 이미지가 아닌 특정 나라와 연관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소재보다는 그 이미지만이 차용되어 신소재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세기와 2000년대의 새로운 패션 소재들을 비교하면 딱딱하고 무거운 금속에서 금속의 사이니한 느낌은 나지만 가벼운 소재의 방향으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21세기에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면서 소재는 앞으로도 더욱 가볍고 부드러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브랜드와 디자인이 가격보다 중요해지면서, 브랜드들은 꼭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기타 이미지를 고집하기 보다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필요한 스타일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의 응용 및 믹스 앤 매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를 위한 패션 소재는 현재의 기능적, 지능적인 소재, 인공적으로 처리된 고급 소재, 투명하거나 가벼운 느낌의 구조적인 소재 등의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21세기 전반을 바라본 미래에는 기능적이고 지능적인 소재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소재의 비율은 낮아지면서 신소재 혹은 기존 소재의 융합 및 처리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과 시각적으로 보이는 메탈릭한 느낌이나 기타 새로운 아름다움도 중요하게 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사회 현상, 사회와 개인의 가치, 기술의 발달 등이 패션 소재와 패션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션은 사회의 반영인 동시에 개인의 감정과 가치의 표현이고, 패션 소재는 패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소재 사용에 따라 디자인의 느낌 및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가 매우 다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패션 컬렉션에 사용된 새로운 패션 소재들은 모두 복식소재다운 소재이며 세탁도 가능한 것들이었다. 보기에는 일반 기존 소재와 같은데 실제 착용하거나 알고 보면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지능적이거나 하이브리드인 소재들이 등장하였고, 겉모습부터 화려하고 미래적인 가볍고 구조적인 천, 의도적으로 처리된 고급 가죽이나 실크 등이 있었으며, 기존 소재를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분야에 적용시킨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거친 린넨 라피아를 이브닝웨어에 적용시켰고, 안감으로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트렌드로 인하여 현재 패션은 오히려 부드러운 가죽보다 저렴해 보이는 크링클 처리된 가죽이 자연스럽거나 캐주얼해 보이는 가공이지만 오히려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가죽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드러운 점핑 밉크보다는 엮색처리 되었거나 시어드(sheared) 밉크가 더 좋고 트렌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미 소재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패션에서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된 이미지들은 글래머러스 이미지, 미니멀리즘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와 미래적인 이미지였다. 의도적으로 처리된 가죽과 실크 등이 글래머러스 이미지를 표현했고, 가볍고 단순해진 소재로 인해 실루엣에 더 중점을 두어 미니멀리즘이 표현되었고,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소재들이 등장하여 페미닌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동양적이거나 이국적인 것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소재를 오히려 전통적으로 표현하여 에스닉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지능적인 소재와 미래적인 가벼운 천들이 미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미래의 패션 소재는 현재의 사회적인 경향과 패션 경향을 따라 지속적으로 기능적이고 지능적이고 인공적으로 처리되고 가볍고 구조적인 천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좀 더 먼 미래에는 기능적이고 지능적인 소재들과 신소재, 기존 소재의 융합 및 처리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소재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촉각적으로 가볍고 부드럽고, 시각적으로 메탈릭하거나 반짝이는 새로운 소재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션 소재의 변화와 함께 미래에도 미니멀리즘 이미지와 미래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높은 가격의 의복보다는 디자인과 브랜드가 더 중요해져서 미래에는 이외에 다양한 소재의 믹스 앤 매치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함께 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style.com만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style.com을 통해 4대 컬렉션에 대한 시각자료를 많이 구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style.com만의 패션기사를 토대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언어적 근거를 찾고 대상을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다. 기타 패션 잡지나 컬렉션 자료를 대상으로 언어적 근거가 있는 패션 의상을 찾았다면 연구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패션소재는 패션디자인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사회 환경과 가치와 함께 변하며, 앞으로는 패션디자인이 점점 다양화되고 다양한 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함에 따라 패션디자인에서 소재의 역

할 및 중요성도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패션소재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미래의 패션디자인 소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 한국의 구체적인 사회 환경 및 방향을 패션디자인을 위한 패션소재와 연관 지어 연구를 하는 것도 한국 패션시장을 위한 패션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정현숙 (1995). 사회 분위기가 패션 모델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wiggy와 Kate Moss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1), p.81.
- 2) 이정주 (2002). 패션디자인 요소로서의 소재 질감, 해전대학 논집, p.260.
- 3) 김일 (1993). Elsa Schiaparelli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II), 복식, 20, pp.179-190.
- 4) 김유정, 김혜경 (2004). 고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디자인포럼21, 7(-), pp.53-67.
- 5) 이민경, 한명숙 (1999).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2), pp.323-333.
- 6) 이인성 (1996). 일상적으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와 테크닉에서 살펴본 의상 창작과 예술 - 1960년대 의상을 중심으로-, 복식, 20(1), pp.197-206.
- 7) 이영재 (2002). 현대 패션디자인의 금속소재 연구 -모드사적 분석과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5), pp.582-593.
- 8) 박주영, 박혜원 (2002). 모피소재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2 F/W 컬렉션을 중심으로), 디자인연구, 7(-), pp.85-103.
- 9) 최종명 (2003). 2001-2003 봄/여름 패션소재 트렌드 분석: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복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총, 7(1), pp.78-98.
- 10) John Gillow, Bryan Sentance (2005). World Textiles -A Visual Guide to Traditional Techniques-, London: Thames and Hudson, p.7.
- 11) Kate Fletcher (2008). Sustainable Fashion and Textiles Design Journeys, London: Earthscan, p.3.
- 12) 유효순, 이정주 (2002). 패션소재에 사용되는 기하패턴, 식품산업연구지, 5(-), pp.83-91.
- 13) 이효진 (1997).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 p.179.
- 14)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에로티시즘), 네이버, 2007,12,15, <http://www.naver.com>
- 15) 김유정, 김혜경 (2004). 앞의 논문, p.66.
- 16) 김유정, 김혜경 (2004). 앞의 논문, p.64.
- 17) 김영인, 추선형 (2002). 패션 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복식, 26(2), pp.193-204.
- 18) 이정주 (2002). 앞의 논문, p.263.
- 19) 이정주 (2002). 앞의 논문, pp.265-266.
- 20) John Gillow, Bryan Sentance (2005). 앞의 책, p.19.
- 21) Kate Fletcher (2008). 앞의 책, p.4.
- 22) Matilda McQuaid (2005). Extreme Textiles -Designing for High Performanc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10.
- 23) 최종명 (2003). 앞의 논문, pp.78-98.

- 24) 송록영 (2002). 텍스타일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2002 밀라노 모다 인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국공예학회, 5(2), pp.107-124.
- 25) 박주영, 박혜원 (2002). 앞의 논문, pp.85-103.
- 26) 박주희 (2006). 현대 패션에 표현된 그리스도교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77.
- 27) 위의 논문, p.79.
- 28) 서이중, 임현진 (2000). 21세기 한국사회: 지식사회나 정보사회냐, 사회와 문화, 12(-), p.295.
- 29) 신행철 (2001). 21세기 후기 산업사회 국가의 성격, 현상과 인식, 25(3), p.118.